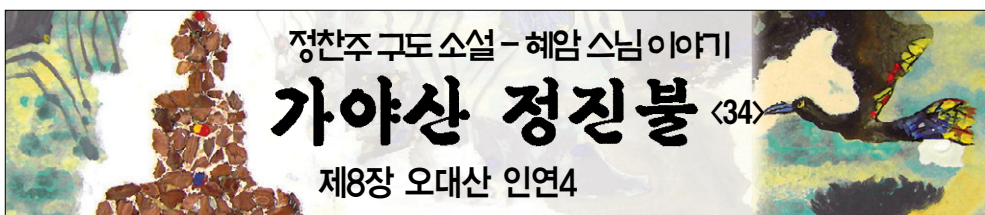


“심안이 열렸다고 법집에 사로잡히지 말라”



해암이 오대산을 잠시 떠난 것은 은사 인곡이 위독하기 때문이었다. 그 무렵 인곡은 고성 육천사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리에 눕더니 갑자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고열에 시달렸던 것이다. 노환이라고는 하지만 뜻밖의 소식이었으므로 문도들이 모두 놀라 육천사로 모여 들었다. 해암은 오대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약재와 마가목차를 곁감에 넣고 즉시 육천사로 내려갔다.

다행히 인곡은 해암이 육천사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열이 내리고 의식을 되찾았다. 해암의 인사를 받은 다음날에는 미음도 한 사발 들었다. 육천사 대중들은 해암의 정성이 인곡을 살려냈다고 덕담을 했지만 해암은 컷 등으로 흘렸다. 새벽예불이 끝난 즉시 인곡이 누운 방 앞에서 마가목차를 우리고 한약재를 다려 올릴 뿐이었다.

“뉘하러 내려왔는가.”
“스님을 모시려고 왔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정진을 잘하는 것이 싫다는 시봉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인곡은 해암의 속마음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무심하게 말했다. 해암이 육천사로 내려와 아침저녁으로 약 시봉을 한 지 한 달이 지나서였다. 인곡은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해 지팡이에 의지해 경내를 산책하기도 했다.

겨울 햇볕이 따사로운 날이었다. 육천사 뒤 대숲이 햇살에 반짝였다. 인곡은 모처럼 멀리 포행했다. 육천사를 감싸고 있는 연화산 봉우리로 가는 산길을 올랐다. 해암은 앞서 걷다가도 계곡을 건널 때나 풀밭길에 나타나면 인곡을 부축했다. 해암은 인곡의 건강을 염려해 한 암자 어귀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스님, 암자에서 쉬셨다가 돌아가지요.”
“저 허공에 백운을 보니 초의 선사가 생각나는구나. 선사께서 청산옹소백운암(靑山應笑白雲巖)이라고 했어. 청산이 왔다갔다 하는 백운을 보고 웃었다는 얘가지.”

암자에는 스님이 없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비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암자 마루는 번질번질했고, 마당에는 비질자국이 선명했다. 마루 끝에 걸터앉은 인곡이 갑자기 물었다.
“오대산에서 공부한 것을 꺼내보아라.”
해암은 주저하지 않고 마당으로 내려갔다.
“무엇으로 보여 드리면 좋겠습니까.”
“내 지팡이로 마당에 꺼내보아라.”
해암은 망설이지 않고 오대산 사고암에서 심안(心眼)이 열렸을 때 읊조렸던 계송을 써내려갔다. 단숨에 미혹할 미(迷)자로 시작해서 밝은 명(明)자로 끝냈다. 그러자 인곡이 눈을 반개한 채 천천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심안이 열렸다고 해서 법집(法執)에 사로잡히지 말라.”
“어찌하면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정진할 뿐 물러서지 말라(精進不退轉).”
“그러하면 어찌 됩니까.”
“광명이 세상이 비치리라(光明照世間).”
인곡은 햇살에 눈이 부신 듯 얼굴을 찡그리며 해암에게 경책했다. 순간 해암은 인곡의 당부를 자신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듣고 주위의 모든 유무정물이 듣는 것 같은 직감이 들었다. 해암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경책 같기도 했다. 인곡의 목소리는 자비롭고 사투 비장했다.

“머리를 만져보고 법의를 돌아보고 중노릇 잘하라. 지옥고는 고통이 아니다. 가사 아래서 사람 몸 잃는 것이 비로소 고통이니라.”
육천사 대중들은 악을 달이는 해암을 볼 때마다 ‘효상좌’라고 위로했다. 그러나 해암은 인곡을 모시고 정진하는 동안이 더없이 좋았다. 인곡과 해암의 마음이 이심전심했으므로 행복했다.
해암은 아침저녁으로 악을 달이는 데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눈보라 치는 날에도 불쏘시개 솥에 불을 붙여 악을 달이곤 했다. 악을 달러 올리는 시간도 정확했다.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인곡의 방문 앞에는 약사발이 놓였던 것이다. 동안이가 끝나가는 어느 날이었다. 인곡이 불쑥 해암 앞에 편지 한 장을 내밀었다. 팔공산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로 있는 효봉이 인곡에게 보낸 편지였다. 편지는 도반인 인곡에게 함께 지내자는 사연을 담고 있었다.
인곡은 이미 결심한 듯 말했다.
“나는 동화사로 갈 것이니라. 너는 어찌할 것이냐.”
“스님, 육체를 생각하십시오.”
“내 걱정은 말라. 나는 오고가는 것에 상관하지 않느니라.”
“저도 스님을 모시고 갈 것입니다.”

“잘 생각했다. 동화사로 가 큰스님들에게 점검 받도록 하거라.”

해암은 인곡의 지시대로 동화사로 갔다. 기력이 쇠잔해진 인곡을 좀 더 시봉하면서 효봉 회상에서 하안거를 나기 위해서였다. 동화사 금당선원은 신참과 구참 수좌들이 즐겨 찾는 선방이었다.
해암은 금당선원에서 정진하는 동안 내원암까지 포행을 나갔다가 돌아오곤 했다. 내원암 앞의 입석에는 ‘제악막자 증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해암의 눈길을 늘 사로잡았던 법어였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뜻을 밝히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해암은 그 깊은 뜻이 마음에 계합된 바가 있었다. 바위에 새겨진 글을 보고 있으면 마음에 불이 하나 켜진 듯 환했다. 그날도 해암은 그 바위 아래서 걸음을 멈추고 무심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 한 노승이 지팡이를 짚고 올라오고 있었다. 해암은 고개를 크게 숙이고 합장했다. 효봉을 만나기 위해 지리산에서 온 금오(金烏)였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제악막자 증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를 보고 있습니다.”
“그 뜻을 일러 보게나.”
해암은 금오의 턱 밑에 주먹을 들어 보았다. 산길을 올라오느라 숨이 턱에 찼던 금오가 다시 물었다.
“내가 뜻을 일러 보라 하지 않았는가.”
이에 해암은 금오를 사정없이 밀어버렸다. 뒤로 나뉘고자 한 금오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화를 내기는커녕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동화사에도 사자새끼가 한 마리 있군.”
사자란 깨달음을 이루어 번뇌 망상이 사라진 도인을 뜻했다. 그래서 도인의 별명을 사자후라고 하는 것이었다. 금오의 격려는 해암에게 불퇴전의 신심을 촉구하게 했다. 해암은 은사 인곡이 걱정했지만 다시 오대산으로 향했다.

이미 상원사 선방에는 활안(活眼), 진제(眞際), 월현 등 10여 명의 수좌들이 결코 방바닥에 눕지 않고 좌선만 하는 1주일 용맹정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해암도 기꺼이 입승이 돼 용맹정진에 동참했다.
1주일 용맹정진이 끝나자, 대중들은 선방의 일과대로 정진을 이어갔다. 훗날 오대산에만 30년을 머물게 돼 수좌들 사이에서 ‘오대산 호랑이’라고 별명을 얻는 활안은 그 무렵에도 기백이 넘쳤다. 그 기백으로 탄허가 인민군에게 잡혀갔을 때 홀로 찾아가 답판을 지어 구출해냈을 것이었다. 활안의 화두는 ‘나고 죽는 그 이전의 나는 무엇인가(生滅未生前 是甚)’였

다. 활안은 태백산 동암에서 참선 중 비몽사몽간에 땅이 갈라지면서 쏟아지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두 손으로 받아내는 불연을 맺은 바 있는 수좌였다.
그때 진제의 나이는 선방 대중들 중에서 가장 어린 26세였다. 향곡의 지도를 받다가 분심이 일어나 오대산으로 달린 젊은 수좌가 바로 진제였다. 진제는 적멸보궁으로 포행 갈 때마다 향곡의 경책을 떠올렸다.
진제가 묘관을사로 갔을 때 향곡이 대뜸 물었던 것이다.
“일러도 삼십방(三十籬)이요, 이르지 못해도 삼십방이냐 어떻게 하겠느냐.”
“...”
“남편 선사가 고양이 목을 뺏다고 하자 조주 선사가 신발을 머리에 이고 나갔다. 한 마디 일러 보아라.”
도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으므로 향곡을 찾아왔는데, 진제는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 그러자 향곡이 진제를 내쫓듯 꾸짖었다.
“아니다. 공부를 다시 해라!”
진제는 향곡의 말을 긍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

병환 깊은 인곡에 아침저녁으로 약 시봉 수좌들 용맹정진 준비에 입승으로 동참



그림 · 최문정

“ 머리를 만져보고 법의를 돌아보고 중노릇 잘하라
가사 아래서 사람 몸 잃는 것이 비로소 고통이니라 ”

심을 펼쳐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2년 동안 전국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번민했다. 도를 알 것 같다는 소견과 선지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번민 끝에 들어온 곳이 오대산이었다.
분심을 크게 내어 화두가 잘 들렸다. 칼바람이 횡행해 선방 안의 한 개 밭과 송화가 얼어붙는 강추위였다. 동안이 동안 단 한 번의 특식 때 두부 한 모와 사과 한 개를 나눠먹을 정도로 더 없이 궁한 생활이었지만 공부가 잘 됐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진제는 날씨가 포근해 선방에서 나와 마루에 앉아 스스로에게 자문했다.
“정말 내 공부가 제대로 됐는가. 됐다면 어떤 법문도 막하지 않고 누가 물더라도 전광석화같이 답을 내놓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데 나에게 과연 해안이 열렸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이전에 ‘달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견성을 삼는다면 허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이는 결국 나를 속이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선지식을 찾아가 망건을 냈는데, 이번에는 자기한테 정직하게 묻고 있었다. 자기한테 물으니 거짓이 한 치도 통하지 않았다. 진제는 그 길로 상원사를 떠나 향곡에게 돌아가 무릎을 꿇었다.
“화두를 내려주시시오. 깨칠 때까지 곁방을 메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관문을 어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진제가 향곡에게 받은 화두는 향엄상수화(香嚴上樹話)였다. 중국 당나라 때 위산의 제자인 향엄이 법문한 것인 바 그 내용은 이러했다.
“어떤 스님이 아주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지도 않고, 발로 밟지도 않고 오직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매달려 있는데, 지나가던 스님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 일이 있다. 대답하지 않는다면 묻는 이의 뜻에 어긋나고, 만약 대답한다면 수십 길 평바닥에 떨어져 죽게 될 것이니 이러한 때를 당해 어찌해야 되겠는가.”
결국 활안은 북대 미륵암으로, 해암은 동대 관음암으로, 월현은 서대 열불암으로, 진제는 향곡이 있는 묘관을사로 갔다. 해암이 동대 관음암에서 해인사로 내려 간 것은 인곡 때문이었다. 해인사로 돌아간 인곡이 다시 병환이 깊어져 지리에 눕게 됐던 것이다.

<계속>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 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신 으로서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안 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결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감원 벽산 원각 |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